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8주일
제27권 36호 (다해) 2007·8·5

[묵상]



어리석음

평생 수고롭게 모은 황금은 황금일 뿐이지만
그 황금에 눈멀어 이웃과 형제를 보지 못하고
황금으로 벽을 쌓고 쌓아 하늘까지 막아서
영혼까지 가두어 몸과 마음 다 찢어 버리는.
욕망에 빠져드는 유혹을 내가 물리치게 해 주시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애인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방학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래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테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파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철웅 베드로
	(생) 조지가보라, 한세권 바오로, 강시애 로사리아 김태경 헬레나, 김혜린 올리아나, 박로렌스 문영일 안토니오와 신혜숙 올리아
주 일 낮 미사	(연) 손석조 마리아, 데니스 웨버, 최원순, 민요한과 마리아 황지엽 요셉, 박호준 마리아, 최복덕 마리아, 임홍식 베드로 이현호 요한, 김인영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김옥주 마리아 김옥희 세실리아수녀, 조정행 프란치스코, 김철웅 베드로
	(생) 정선결 모니카, 김재순 아가다, 이봉림 안나, 김리키 윤재림 마리아, 이병호 토마스, 김두영 시몬, 이종민 요셉 김기준 안젤라, 김용 스테파노, 김철민 요한, 이인석 비오, 조소영 수산나, 김옥찬 수산나, 고규재 체칠리아 서혜경 세라피나, 최수복 클라라, 홍정란 클라라 차봉관 로베르토,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가정 박토니와 제임스가정, 남가주 여성 제27차 꾸르실료 수강자와 봉사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코헬렛 (Ecclesiastes) 1,2; 2,21-23
화답송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말라. <전례성가 85, 연중제18주일 C해> ○어서와 하느님께 노래부르세. 구원의 바위앞에 목청 돋우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 노랫가락 드높이 주님을 부르세.◎ ○어서와 옆드려서 조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앞에 무릎을 꿇세.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 이시네. 우리는 그 목장의 백성이로세.◎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말라.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고 내일을 보고도 시험하려했네.◎
제 2독서	콜로새서 (Colossians) 3,1-5,9-11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행복하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루카 (Luke) 12,13-21
영성체송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갖가지 맛을 내고, 모든 입맛에 맞았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193
봉헌	하늘의 태양은 못되도	264, 200
성체	하느님 그리고 나	280, 304
파견	너는 내 아들이다	227

<오늘부터 가톨릭교리를 요약, 연재합니다. 출처:CBCK>

1. 종교가 필요한 우리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위기에 놓였을 때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 맙소사!” 하고 외쳤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도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하였습니 다. 이는 ‘하늘’을 단순히 하늘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일찍이 하늘을 ‘하느님’이라고 불렀으며, 재앙을 피하고 복을 빌기 위하여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 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느님에게는 사람 손으로 채워 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사도 17,23-27)

▶ 타고난 종교적 심성

인간은 본래 종교적 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해 하며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인간은 진실하고 보람 있는 삶을 갈망하며 어쩌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양심에 가책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나약과 부족을 스스로 알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좀 더 절실하게 느낄 때 인간의 종교적 본성은 더욱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교, 유교, 개신교, 천주교 등 여러 종교들이 저마다 독특한 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여러 종교들은 발생 기원과 교리, 조직 체계와 신앙 태도 등에서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란 이런 것이다.’ 하고 명쾌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하나의 감정에 빠지는 것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 인생관, 또는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는 도덕적 가르침이거나 신비적인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종교를 단편적으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참으로 부자 되는 길

한여름입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놀라운 생명력을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마기간 동안에 내린 비로 땅은 물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뜨거운 태양은 열매를 재촉합니다. 곡식과 과일도 풍성한 계절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교회는 복음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자연이 주는 재화에 현혹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곡식과 재물”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대립구조를 통해 소유와 존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들(재산, 경력, 경험)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수단은 수단일 뿐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재화의 증식과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화의 증식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자신이 언제라도 죽어야 할 존재이며 죽은 뒤에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느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입니다(1코린 3,11-15 참조). “자신을 위해서”(루카 12,21)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화를 “자신을 위해서” 모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마태 6,21)라는 말씀처럼 그에게는 하느님이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의 코헬렛(전도자)은 온갖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벌어들인 재화가 결국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리라는 말을 함으로써 재화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코헬 2,21-23). 그는 비관주의자도 아니고 무책임한 삶을 찬양하는 비현실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재화들은 결국 바람처럼 지나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던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로서는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코헬 1,1) 하며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콜로 3,1). “저 위에 있는 것”이란 벌어들인 재화나 재능 또는 명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에 나온 “곡식과 재물” 그리고 “목숨”의 대립구조가 여기서는 “땅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으로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우리 존재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콜로 2,3)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 김영국 요셉 신부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텔	주일학교 데이빗 김
제물봉헌자			토렌스 동 2,4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래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모은기 다두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변혜경 올리아나	주일학교 소피아 한
제물봉헌자			토렌스 북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 헌금 (매월 첫째 주일)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3,505단 ☞ 총 합계: 166,899단

8월

◆ 병자영성체 : 9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모 승천 의무대축일 미사 : 15일(수),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남가주 여성 제27차 푸르실로 수료자 환영식

- 8월5일(주일), 오후 7시 30분, 강당
- 수강자: 권순길(세실리아), 이정숙(스테파니)
서혜경(세라피나), 구마리아네 수녀님
- 푸르실리스파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예비자 교리반 소식 ◆

◆ 수요일 1일 피정

- 8월11일(토), 오후 3시~오후7시, 예비자 교리실

◆ 수요일 세례성사

- 8월22일(수), 오후 7시30분 미사 중에

◆ 목요일 개강

-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인도합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예비자 교리실

◆ 배론 청년회 찬미의 밤

- 주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12,49
- 8월 18일(토) 오후6시30분, 성당
- 문의: 청년회 회장 강정현 시몬
전화 (323)899-5581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일학교/한국학교/ 자모회/청년회 연수

- 9월15일(토), 오전 9시30분~12시
- 강사: 김알렉스신부, 성 토마스 성당 본당신부

◆ 주일학교 교사 Workshop

- 9월15일(토), 오후 1시~4시, 강당
- 대상 주일학교 교사 및 보조교사

◆ 남가주 제16차 선택 주말 수료자 환영식

- 8월5일(주일), 오후 6시, 2층 유아실
- 참석자: 송주영 크리스티아, 이상용 엘리야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선정 크리스티나
박호성 로렌스, 임나래 유스티나
- 배론 청년회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여름 건강관리를 위한 침뜸 강의

- 7월29일~8월5일, 19일, 26일, 주일 오전
- 오늘주일: 원기증진, 다음주일: 고혈압, 중풍예방
- 강사: 권진열(피데스), 310-800-3592

◆ Saint Margaret Mary 본당 로미타 축제

- 9월7일(금)~9일(주일)
- 금:오후5시~11시, 토:오전11시~오후11시, 주일:오후12시~9시
- Saint Margaret Mary 성당,
(25511 Eshelman Ave, Lomita)
- 게임, 다민족 음식, Rides, Live Entertainment & 맥주 코너
- Raffle 티켓 판매: 1장당 \$1 ● 문의: 김요한 740-1502
(1등 \$10,000, 2등 \$3,000, 3등 \$2,000, & more)
- Raffle 티켓 판매 마감: 8월17일(금)
- 모든 수익금은 본당 사목과 St. M.M. 학교기금으로 이용됩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호응을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8월 5일: 하비/카슨 2반 (춘천 막국수 \$3.00)
- 8월 12일: P.V. 2반 (비빔밥 \$3.00)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성전헌금	성전헌금					
	장숙경	김광자	김대우	김미경	김원태	김재연		장숙경	김대우	김미경	김재연	김철수	김태호
	김정웅	김철수	김태호	박동수	박영룡	박종열		박동수	박영룡	박종열	박희자	서홍삼	신경숙
	박현주	박희자	서홍삼	손춘화	신경숙	안태갑		엄혜은	육재민	윤석구	이병우	이영석	이현주
	엄영희	엄혜은	오진	육재민	윤석구	이병우		이호세	정기은	주태청	차봉관	차인수	최귀환
	이영석	이현주	이호세	정기은	주태청	차봉관		현석주	홍석철	홍숙자	홍주희		
	차인수	최귀환	현석주	홍석철	홍선자	홍숙자							
	홍주희												
						합계 : \$ 2,930							합계 : \$2,450
미사헌금 : \$ 2,498.20							감사헌금 : 오세원 이정훈						

남가주 소식

◆ 청소년들을 위한 제3차 Summer 영성 피정

- 8월16일(목)~19일(주일) ● 지도: 이유진 신부님
- 데미쿨라 꽃동네 피정의집 ● 대상: 9학년~12학년
- 참가비: \$110 ● 신청문의: (951)302-3400

◆ 위성탄성당 한국성모자/순교자 부조상 봉헌식 참가단 모집

- 내용: 1) 2박3일-미사참석+위성탄관광+추기경님과 만찬
2) 3박4일-미사참석+위성탄관광+뉴욕관광
- 참가비: 1) 2박3일 \$899 2) 3박4일 \$1,049
- 출발일: 9월21일(금) 오전 9시 LAX 출발
- 신청 마감일: 8월13일
- 문의처: 성삼 한인천주교회
사목회장 박흥기 요한 (213)500-7897

◆ 오웅진 신부님과 함께하는 “제2차 가정성화 피정”

- 8월22일(수), 오전9시~오후10시
- St. Emydius 성당 내 강당 (Lynwood 꽃동네 맞은편)
10900 California Ave., Lynwood, CA 90262
- 참가비: 무료 (점심 각자 지참, 저녁 식사 제공)
- 연락처: 951-302-3400

◆ 제20회 남가주 성령 쇄신대회

- 8월18일(토), 오전8시~오후10시
8월19일(주일), 오전8시~오후5시30분
- L.A. Technical College, Grand Theater
- 강사: 제럴드 윌커슨 주교, L.A. 대교구 보좌주교
오웅진 요한 신부, 꽃동네 설립자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한국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박상대 마르코 신부, 백삼위 한인성당 본당 신부
정현철 알렉시오 신부, 성 그레고리 성당 본당 신부
- 연락: (818)480-1615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 후원: 남가주 사제협의회, 남가주 평신도 협의회
가톨릭신문, 가톨릭 방송, 평화신문

◆ 제1차 남가주 청년 성령대회

- 8월24일(금) 오후7시~오후 11시
8월25일(토) 오전9시~오후6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초청강사: 문다깃 신부님
신상현(야고보 수사/꽃동네 예수형제회 원장)
- 문의: 본당 기도회 회장 또는 KCRM (310)650-9058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반장 모임	오후1시15분, 강당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각단체 모임	오후1시15분, 각 방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배태임 안나 781-9199 8/11(금) 오후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한길선례 스프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례 스프라스타카 782-1025 8/10(금), 오후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박동수 베드로 618-8499 8/12(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홍선자 데레사 212-5509 8/18(토) 오후6시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한나 720-7898
	3	임형미 사비나 408-3835	임형미 사비나 408-3835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이복임	1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최미열 클라라 324-0735 8/10(금), 오후 7시
	2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최벨라맷다 213-718-0310 8/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755-4311 8/20(월)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홍정란 클라라 544-6290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주님의 기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는 단연 ‘주님의 기도’이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일러 주신 기도이다.(루카 11,2) 우선, 주님의 기도를 조용히 한 번 바쳐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모두 일곱 가지의 청원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 안에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바치는 세 가지의 청원이 담겨 있는데, 온 땅에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섭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청원이다. 두 번째 단락 안에는 우리 사람에게 관련된 네 가지 청원이 담겨있다. 이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잘못에 대한 용서, 유혹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청원으로서 우리 인간 자신과 삶에 대한 청원이다.

공생활 중에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주님의 기도는 분명, 사람이 되신 그 분이 하늘의 아버지께 드리는 자신만의 기도였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하였을까? 그렇다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신 한, 기도 안에서 자신이 아버지와 가지는 정체성(신원)을 확인하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계신 존재이유와 과제(의무(미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됨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이름)과 그분의 통치(나라)와 그분의 섭리(뜻)가 계시되었음을 선포하신다. 아울러 이 땅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육체적 구원(양식)과 영혼의 구원(용서)을 도모함으로써 구원된 모든 인간을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어, 마침내 종말론적 구원(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짐하신다.

이제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기도가 되었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다.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인간 실존을 위해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찬미하며 청원을 드린다. 인간이 하느님께 청하는 일용할 양식은 언제나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청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간, 즉 이미 행한 어제의 잘못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와 해방을 청하는 것은 미지의 내일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오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청할 때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또 우리가 어제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할 때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봉헌을 생각하며 구세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또한 우리가 다가올 온갖 유혹에 대한 보호와 마침내 악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청원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강령하신 진리이며 협조자인 성령 하느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는 온 땅에 한 분이신 하느님의 영광과 통치와 섭리를 청원하며, 성삼 하느님의 각 위격에 우리 인간의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보호와 구원을 청원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완벽한 기도이다. 이제 주님의 기도는 매일 매일 하느님 성삼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하며, 이 기도 안에서 나 자신의 존재이유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본당 주임 박상대 신부)